

|   |
|---|
| <p><b>1p 정보전달의 화법 정보처리 공식</b><br/>(feat.평가원의 관점觀點)</p> <p>1. 지문 설계 - 독서 내용+ <b>구조</b></p> <p>2. 1st 문항설계 = 주제+전개방식(내용&lt;구조)</p> <p>3. 2nd~3rd 문항설계에 따라 막히면?</p> <p>⇒ <b>구조</b>에 집중</p> <p>단순한 일치, 정보 확인, 정답 근거판단 논리적 사고 능력은 기본 중 기본. 이.제.는</p> <p><b>정보가치 + 구조 처리 역량까지 필요!</b></p> <p>4. 괄호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다수 중요</p> <p>5. 신유형이라 판단되면?</p> <p>⇒ <b>구조</b>에 무조건 집중</p> <p>cf) 청중의 반응<br/>정보처리규격 : Q(의문), 경험, 배경지식, 긍정/부정 가치판단, 의문, 추측, 추론 ... 처리</p> <p>cf) 자료 활용<br/>지문의 주제-구조 연결임. 절대 새로운 내용 없으며, 지문의 주제-구조에 따른 정보처리를 얼마나 평가원의도에 맞게 처리했느냐의 싸움</p> <p>6. 지문 정보처리 규격 ex) 인사말, 출처, 서적 인용, 전문가 견해, 수치 통계 자료, 등</p> |
|---|

|  |
|--|
| <p><b>feat. 평가원의 관점-觀點 + 배인호t 실전tip.</b></p> <p><b>1. 괄호에 집중하라</b></p> <p>- 문항설계상 '괄호 = 화법의 특징적 정보구조'</p> <p>- 따라서, 현재까지 출제된 평가원 기출은 '(괄호)=정답선지 관련 확률 100%</p> <p><b>2. 막히면 내용일치가 아니라 구조 처리</b></p> <p>- 내용 처리는 이미 독서에서 충분히</p> <p>- 따라서, 내용+구조라는 정보의 요소 중</p> <p>- 구조 처리 능력을 화법에 출제-설계하기 시작하면서,</p> <p>- 화자 난이도, 시간, 정보량 모든 부분에서 폭발</p> <p>- 대부분의 기존 접근 틀 / 학생들은 적용 못함</p> <p><b>3. 더 이상 논리'만' 묻는 시험이 아니다.</b></p> <p><b>4. 정보처리 능력 = 정보가치 판단 + 정보구조 처리 = 압도적 정보량 처리능력</b></p> <p>수강 결과는?<br/><b>10주 이상 수강생 10문항 평균 풀이시간 17분 -&gt; 8분</b><br/><b>10주 이상 수강생 98% 7분30초 이내 + 정답률100%</b></p> <p>수업 홍보가 아니라...<br/>이젠 정말 좀 2017학년도 이후 바뀐 수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고생 덜 하길... 수업생들 고생 나도 눈물남 ㅠ</p> |
|--|

|  |
|--|
| <p><b>2~3p 상호작용의 화자 통합형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b></p> <p>1. 대화(상호작용유형) ⇨ 전체 관통 주제 + 흐름 + 화제 전환 + 여전히 <b>구조, 전개방식</b> 집중처리</p> <p>2. 대화 특성상 정보량 터짐 + 화제 전환. 따라서, 문제부터 보고 <b>지문-문항 전반 설계 파악 후</b> 접근으로 시간, 발해독 횟수 대폭 감소 필요</p> <p>3. 특이유형 cf)고쳐 쓰기 (관련개념 : 글의 구성원리 = 통일성-포괄성/일관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 바탕. 문법요소 = 피동사동, 중의성, 부정, 중복 표현 등)</p> <p>- 정답선지- 맞춤법확률5%미만(그것도 언어영역시절)</p> <p>- 정답선지- 글의 구성 원리 80%</p> <p>- 정답선지-macro 문법파트(그 중 문법요소파트)15%</p> <p>- 따라서, 고쳐쓰기 유형은 매크로한 문법 + 글의 구성 원리에 초점 두고 지문 풀기</p> <p>cf) 표현하기 (원래 문학 문항 따라서, 내용+형식/표현. &lt;보기&gt; 조건 확인 후 발해/기존 잡아 처리)</p> <p>cf) 자료활용유형 (원래 작문유형이나 통합형 출제시 대부분 '주제' '구조' '정보가치 높은 선지' = 정답</p> |
|--|

|   |
|---|
| <p><b>3~4p 설득의 작문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b></p> <p>독서 지문의 10% 이내만 차지하는 '논설문' 유형 특성 작문 유형으로 출제 따.라.서... 묻는 것은 철저하게</p> <p><b>1. 논증구조</b></p> <p>필수 : <b>주장+근거</b></p> <p>덧붙이면 : 전제/도입/배경+ <b>주장+근거</b> +예시</p> <p>과거, 서울대 논술에서는 없으면 <b>감점</b></p> <p>연세대 논술에서는 있으면 <b>가점</b></p> <p>전제+<b>주장+근거</b>+예시+ <b>예상가능반론+재반박</b></p> <p><b>2. 비판 유형</b></p> <p>우리는 비판을 할 줄 모름. 따라서, 너무 간단</p> <p>정답유형1. 상대가 '언급'(범주)</p> <p>정답유형2. 상대의 주장(반대서술)</p> <p>논술기준, 전제 비판, 주장 비판, 근거 비판, 예시 비판, 전제와 주장관계 비판, 주장과 근거 관계 비판, 타당성, 적절성, 가치유일등에 대한 비판이라는 평가원의 틀이 있으나 학생 체감 zero. 그래서,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 (특히 주장)인지, 상대방이 언급한 주장의 반대 서술인지만 판단해도 95% 정답.</p> |
|---|

|  |
|--|
| <p><b>문법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b></p> <p>평가원 피셜 문법 교수학습목표 '기초적인 문법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p> <p>1. 절대로 어려운, 심화 개념, 혹은 몰라서 틀릴 개념을 출제하지 않는다.</p> <p>2. 절대로 교과서 수준의 누구나 다 아는 개념수준에서 나온다. (안 믿기면 얼마든 확인 가능! 14~20기술)</p> <p>3. 평가원 피셜, 중세국어 교수학습 목표</p> <p>- '현대 국어, 문법의 논리적 설명을 위해'</p> <p>- <b>9개념만 암기. '논리적 사고의 수단'</b></p> <p>- <b>현대국어 VS 중세국어 비교 추론</b></p> <p>- <b>소리 나는 대로 속발음 + 한자어/어휘 문맥추론</b></p> <p>- 거의 정답!</p> <p>4. 2009개정교육과정 VS 2015개정교육과정</p> <p>- 실제 작년 이것으로 복수정답VS정답 논쟁(평가원 연구교수님/평가원에 영향력 있는 교수님과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안 보임. <b>이걸 모른다? = 수능 모른다</b>)</p> <p>5. 킬러 문항은 절대로 어려운 개념에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b>'논리적 사고' 즉, 평가원의 출제에도 파악 못해 서임. 대부분 문제에서 묻는 것처럼 보이는 표면적 개념과 실제 문제풀이에서 적용되는 이면적 개념 차이</b></p> <p>6. 독서통합형. 독서 아니다. 문법이다. 따라서,</p> <p>- 문제부터. 문법 문제 개념 적용하듯이</p> <p>- 필요한 개념 위주 정보처리</p> <p>- 필요시 독서 정보 구조처리</p> <p><b>*공부하면, 내신 수준 개념 문제는 누구나 다 맞음.</b></p> <p><b>*문제는, 킬러/독서통합/중세국어.</b></p> <p><b>*문법은 개념/지식이 아닌 논리적 사고 측정목적</b></p> |
|--|

|  |
|--|
| <p><b>고전시가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b></p> <p>1. 서정장르 접근법 베이스</p> <p>2. 소리나는대로 속발음, 한자어/문맥 추론</p> <p>3. 전형적 주제</p> <p>cf) 유교적 가치관, 그러니까 충+효, 충=연군지정, 충=관직 나가야지 = 시험치려면 학문 해야지 - 학문=수양 해야지 = 학문=수양하려면=자연친화 - 자연친화 하다보면 또 돌아일체. 매우 편함</p> <p>cf) 고려가요 - 삼분후 (3음보, 분절체, 후렴구)</p> <p>근데 이딴 개념 1도 안 중요함. (시대에 따라 개념이 중요해지는 교육과정/학계 흐름이 있음. 올해는 아님)</p> <p><b>*시랑 똑같은. 나라면, 그 시절에, 왜 그렇게 표현 했을까? 아! 관직 나가고 싶구나, 근데 자연도 좋구나, 방향 없겠네. 자연 놀다 보니 좋구나, 무릉도원이 여기구나! 맨날 이런 거임.</b></p> <p><b>*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게 출제 목적</b></p> |
|--|

|  |
|--|
| <p><b>문학'서정'장르 정보처리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b></p> <p>비문학(=이성) + (문학=감정) = 완전한 인간</p> <p>cf)15수능 칸트 미감적 판단력. 주관적 보편성. 미감적 공존제 ⇒ <b>문학적 관습</b></p> <p>문학을 왜 하나요? '국어'시험이니까. 논리학 시험 아님!</p> <p>서정장르 교수학습 목표 : '공감능력 향상' = 정전교육목표. 따라서...</p> <p>1. 서정 장르 주제 = 정서 (감정,느낌,생각,태도,반응)</p> <p>⇐ (문학적 관습) ⇐ 상황/분위기</p> <p>2. 문장 구조 S O C Ad V &amp; 수식, 반복, 강조</p> <p>3. 전체 구조, 시상전개방식, 특이한 소재, 제목 집중</p> <p>4. 문학적 관습, 전형적 주제 매우 중요</p> <p>- 개념이 문제 10% 내외</p> <p>- 내용-공감-감정 처리 문제 90%</p> <p>- 주제 관련 키워드 선지 정답확률 87% (14~20기술 14문항 중 11문항)</p> <p>5. 선지 판단은, 주제로 좁히고 필요시 발해독</p> <p><b>*나라면, 왜 그렇게 표현 했을까?</b></p> <p><b>*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게 출제 목적</b></p> |
|--|

|   |
|---|
| <p><b>문학'서사'장르 정보처리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b></p> <p>1. 주제 : 서사 줄거리</p> <p>2. 서사 구성하는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상황</p> <p>3. 인물(=성격) + 내면심리 파악이 핵심</p> <p>4. 특이한 소재, 특이한 전개방식, 특이한 배경</p> <p><b>***첫부분 인사배 setting 잡기</b></p> <p><b>*인물多 주인공 서사에 집중</b></p> <p><b>*최근 상호텍스트성을 한 작품 내의 대칭 구조에 집중 시킴</b></p> <p><b>*정보량 터질수록, 위의 정보가치 높은 내용 처리 필요</b></p> <p><b>*서사 교육 목표 : 삶의 총체적 이해 + 삶의 고양</b></p> <p><b>*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 간접 체험</b></p> <p><b>*서사 장르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삶이 고양되길 바람</b></p> <p><b>*서사 장르 감상하며 뭔가 느끼면 = 100점 줌</b></p> <p><b>*그럴려면? 일단 인물 내면 파악, 사건/갈등 원인 및 장면 상황 파악, 전반적 줄거리 파악.</b></p> <p><b>*주제는 변하다.</b></p> |
|---|

압도적 강의, 압도적 자료, 압도적 평가원 분석, 압도적 성장률 **배인호 신수능국어 파이널 I 1장 공식 '시험장에 들고 가는 마지막 1장'**

|   |
|---|
| <p><b>독서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b></p> <p>1. 주제 위치 : 첫단락 + 첫단락 끝부분 + 두 번째 단락 첫부분 집중 ⇒ 전체 연결되는 주제 흐름 잡기</p> <p>2. 구조 - 문장 S O C Ad V 처리 + 반복, 강조 체크</p> <p>3. 구조 - 문단. 글, 글의 구성원리, 글의 전개방식+표지(지시/연결),</p> <p>4. 최근 지문의 출제양상 : 정보군집 단독문항 출제, 상호텍스트성 - 한 지문에 여러 주제 복합, 원리 지문 - 이해 적용 요구, 필요시 표, 그림, 그래프 등으로 그려 처리 요구, 수학 공식 이해 적용 요구, 인과/원리는 무조건 정보가치 높음</p> <p><b>독서가 막히는P(problem)이유C(cause)는?</b></p> <p>1. 내 독해력의 문제가 아님. 평가원 지문 문제임!</p> <p>2. 정보압축, 생략, 변형, 기술/ebs연계 과정에서 왜곡 ⇒ <b>결국 지문의 논리적 모순, 정보량은 폭발.</b></p> <p>*4차 산업혁명 특징에 맞는 정보처리 요구</p> <p>*제발 좀 1994학년도 시절의 정보처리 방법 언어영역 요구 능력 vs 현 수능 국어영역 요구 능력 혼동 좀 그만. 이전 논리'만' 묻는 시험 아님. 일치, 1:1 대응 죄다 '라떼'는유형.</p> <p>그 결과 시간 부족 + 20-6월 만점자 65명(대치동 200명 마감반에 만점자 1명도 없음. 뭐하심?? 4시간씩 줄 서서 들어가는데? 갑갑...답답...)</p> |
|---|

|  |
|--|
| <p><b>경제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b></p> <p>평가원 기술 연계 + ebs 연계 + 심지어 교육청 연계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p> <p>'금융'자본주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p> <p>2018-6 통화정책 (이 <b>지문부터 특이점</b>)</p> <p>2018-수능 정책수단-오버슈팅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바뀐 1997 IMF의 대표 현상 환율 폭등 현상임)</p> <p>2019-9월 CDS-P (기존 경제정책이 쓰러져가 가게 된 2008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파생상품임)</p> <p>2020-3월 주식회사-순환출자 (본질은 '금융'자본주의의 모순과 태동에 대한 원리임. <b>이때 나는 3년 안에 나온 다 했는데 3개월 안에 나온</b>)</p> <p>2020-6월 대량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경제정책 <b>이때 다 터져나감</b></p> <p>2020-수능 BIS 지문(적중)</p> <p>올해는? (앞으로 3년내 출제 예상)</p> <p>ebs에 '금융'자본주의 주제 꽃음</p> <p>1. 중앙주의-고전학파-수정자본주의-신자유주의 흐름</p> <p>2. Q.E(양적완화)원리 다룰 거임</p> |
|--|

|  |
|--|
| <p><b>S(solution)독서가 막히면? 이렇게!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b></p> <p>수능 독서 정보처리 안 되는 문제와 원인</p> <p>1. 80분안에 절대 처리 불가할 정도로 정보량 폭발</p> <p>2. 그런데 정보 처리에 충분한 내용은 또 부족함</p> <p>3. 완결성 떨어지는 지문</p> <p>배경은?</p> <p>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정보 성격 그대로 출제+처리 Big Data ⇨ Data Structure 분석 ⇨ Crawling 네이비에 '2020-9월 소유와 점유 지문' 검색해 보면. 시스타 소유 내용.</p> <p>법정스님 무'소유', 구운몽 양'소유'</p> <p>뭔 상관임? 님 그거 읽음? 그냥 넘기고 선택/집중.</p> <p>수능 지문도 똑같은. 절대로 모든 지문 100% 처리 불가한 정보량 낸 이유 좀 생각. 언제까지 언어영역 시절 문제 접근법을 쓸거임?</p> <p>해법은?</p> <p>1. 주제, 즉,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p> <p>2. 구조, 처리</p> <p>3.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p> <p>1년 6개월만 지나도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정보량이 새로 생기는 시대임. 절대로 모든 정보 완벽 처리 불가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 대상은? 당연히 정보가치 높은 정보. 동시에 그 정보간의 관계, 즉 구조 처리가 되어야 유의미한 정보 처리 됨.</p> |
|--|

|   |             |                        |                        |          |             |          |             |     |             |
|---|-------------|------------------------|------------------------|----------|-------------|----------|-------------|-----|-------------|
| <p><b>법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b></p> <p>경제 지문 출제에서도 보이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한글 문맹이 아니라 '실생활지식 문맹'</p> <p>나도 계약서 + 소송사 먹튀로 인생 꼬임... ㅠ</p> <p>그래서 니네 나중에 부동산 사고 할 때 피피피 마란 거임. 평가원 교수님들 너무 착하시고 좋으시고 천재서 ㅠ</p> <p>관습법 - 판례법 - 대륙법 (법계) 특징</p> <p>따라서, 보통 법을 지문의 구조와 내용은</p> <p>1. 예시-원리로 초반부 세팅. 원리 세팅이 중요</p> <p>2. 원리의 사례 적용</p> <p>3. 문제제, 성문법 적용 과정에 사례별 문제가 따름</p> <p>4. 그 해결책</p> <table border="1"> <tr> <td>초반부 주제</td> <td>예시-원리(법률)세팅</td> <td>지문 구조는 대체로 왼쪽 구조임 그런데?</td> </tr> <tr> <td>후반부는 P-S</td> <td>P-S P-S P-S</td> <td>왜 2020-9</td> </tr> <tr> <td>... (계속 반복)</td> <td>P-S</td> <td>소유 점유 어려울까?</td> </tr> </table> <p>상호작용식(feat 하향식) 좀 해.</p> <p>하향식 독서모형 -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정보처리</p> <p>상향식 독서모형 - 단어, 문장, 문단, 글, 글에만 집중 하여 정보 처리</p> <p>상호작용식 - 둘다</p> <p><b>실생활 연결지면 개 쉬워짐</b></p> | 초반부 주제      | 예시-원리(법률)세팅            | 지문 구조는 대체로 왼쪽 구조임 그런데? | 후반부는 P-S | P-S P-S P-S | 왜 2020-9 | ... (계속 반복) | P-S | 소유 점유 어려울까? |
| 초반부 주제  | 예시-원리(법률)세팅 | 지문 구조는 대체로 왼쪽 구조임 그런데? |                        |          |             |          |             |     |             |
| 후반부는 P-S  | P-S P-S P-S | 왜 2020-9               |                        |          |             |          |             |     |             |
| ... (계속 반복)   | P-S         | 소유 점유 어려울까?            |                        |          |             |          |             |     |             |

|  |
|--|
| <p><b>과학기술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b></p> <p>2019수능 역대급 지문 우준은 - 과학기술 아님!</p> <p>철학지문임</p> <p>2018-6월 동양철학-법제개혁론</p> <p>2018-수능 서양철학</p> <p>2019-6월 서양철학 - 동양전래</p> <p>2019-수능 서양철학 - 동양전래</p> <p>이 흐름임. 제발 좀. 우준은? 과학기술? 절대 불가.</p> <p>그래서 만점148명. 다 수능 터짐. 야..나두. 야..너두?</p> <p>최근 평가원 과학기술 지문 특징과 문제 원인</p> <p>1. 정보량 폭발</p> <p>2. 완결되지 않은 정보 (생략, 압축, 변형등의 과정에 왜곡/논리적 모순 발생)</p> <p>해결</p> <p>1. 처리가능한 정보에 집중</p> <p>2. 정보가치 높은 내용 + 정보구조 / 설계 처리</p> <p>3. 원리/수학 공식 무조건 처리</p> <p>4. 때때로 표/도식화 필요</p> |
|--|

|   |
|---|
| <p><b>논리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b></p> <p>2019수능 가능세계 복수 정답 시비 비롯. 일이 많으나 평가원 오피셜 기준 너무 잘 냄!</p> <p>왜 물리학 박사가 나서서 수능 국어를 건드림?</p> <p>왜 논리학 박사가 나서서 수능 국어를 건드림?</p> <p>왜 경제학 박사가 나서서 수능 국어를 건드림?</p> <p>물리도, 논리도, 언어도, 경제학도 아닌</p> <p>수.능.국.어. 즉, 국어교육학 베이스의 2015개정 국어 과 교육과정에서 시험 범위임. 당신들 수능 국어 시험범위 한 줄은 읽고 떠드심?</p> <p>내가 물리, 경제, 코로나에 대해 떠들면 안 되듯, 마찬가지로.</p> <p>그러면 수능 국어 논리 지문의 특징?</p> <p>1. 평가원 기술 연계 + ebs 연계 전체</p> <p>2. '고3' 수준에서 처리 가능한 수준의 국어사고, 국어에 관련된 논리 내용을 다룸</p> <p>3. 하지만, 정보량 폭발</p> <p>4. 완결되지 않은 정보 (생략, 압축, 변형등의 과정에 왜곡/논리적 모순 발생)</p> <p>문제 발생. 해법은?</p> <p>1. 처리가능한 정보에 집중</p> <p>2. 정보가치 높은 내용 + 정보구조 / 설계 처리</p> <p>3. 1과 2를 바탕으로 이해한 원리 적용</p> |
|---|

|  |
|--|
| <p><b>문학'기라'장르 정보처리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b></p> <p>수필</p> <p>1. 시 + 소설 + 독서 구조 특징</p> <p>2. 주제 구성 문제 소재 표현 5요소 중</p> <p>3. 깨달음이 주제. 초반부 흐름에서, 마지막 단락 중요</p> <p>4. 주제 + 흐름 = 깨달음 잡기</p> <p>희곡-시나리오</p> <p>1. 서사장르 기반</p> <p>2. 장면으로 모든 것을 보여줘야함</p> <p>3. 따라서, 장면상상 필요, 지시문(내면심리), 해설(압축 제시, 정보압축, 정보가치 높아짐) 매우 중요</p> <p>4. 장면에 대한 상상 필수</p> <p><b>인생 살며, 수험 생활 만큼 노력과 그 보상이 비례하는 경험이 많지 않음.</b></p> <p><b>강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강사로서 내 사명이자 역할</b></p> <p><b>전국 최고의 수능 국어와 자료를 위해 오늘도 목숨 걸고 순간 순간 살아감.</b></p> <p><b>우리 수험생. 힘내라.</b></p> |
|--|

|  |
|--|
| <p><b>철학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b></p> <p>과학기술 지문 내용에서 보이듯</p> <p>철학의 지문의 흐름은 위에서 언급 + 계속 이어지는데</p> <p>철학 ⇨ 현상 만들</p> <p>따라서, 현상의 본질이고, 이 시대정신을 통찰할길 원하는 평가원 교수님들의 바람.</p> <p>동양 = 서양철학 비교대조 및 발전흐름</p> <p>예를들면</p> <p>관념론으로 시작했던 인류의 사상은</p> <p>신학-철학-자연과학으로 이어지며 발전</p> <p>특히, 경험주의/경험론의 발달로 지금의 변화를 가져 온</p> <p>문제는 동양은 쇠국하다가 뇌피셜하다 망함. (청/조선)</p> <p>이 = 형이상학 = 원리, 진리, 이상, 도덕, 신, 이데아, 성리학</p> <p>기 = 자연과학 = 사물, 대상, 구체, 교정 대상, 성리학 미만 잡다학문</p> <p>이 흐름 잘 잡으실 것.</p> <p>특히나 2019 수능 역대 지문인 우준은 위 흐름임</p> |
|--|

### 압도적 실적

**'9평 3등급. 처음 배인호 선생님 자료를 접하고 2주만에 10월 학평 98점. 수능 15분 남기고 1등급. 서울대 기계공학과 합격.'**

- 수업 없이, 자료로만으로 이루어낸 결과
- 서울대 기계공학과 20학번 양민오

**'고1~2 프로그래머 준비. 학교 자퇴 후 3월부터 공부 시작 후 배인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전과목 4개 틀리고, 고려대 경영, 서울대, 한의대 지원했어요!'**

- 대치명인학원 의치대반 수강생,
- 현 배인호 신 수능국어 연구실 조교
- 고려대 경영(본캠) 20학번 김중오

**'9평 2등급. 불안한 상황에 배인호 선생님과 함께했고, 원하는 대학 합격 했습니다.'**

- 온라인 라이브반
- 고려대 전기전자공학과(본캠) 20학번 차주오

**'고2 11월 3등급. 그런 제가 차근 차근 6평 2등급. 9평/수능 1등급에 이어 연세대 합격했어요.'**

- 대치명인학원 수강생
- 연세대 화학공학과(본캠) 20학번 박경오

### 입시 고인물들은 알아 봄

수능 국어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았고, 그것이 한이 되어

메가, 이투스, 대성, 스카이 인강 대표 4사는 1~3타 강의는 물론, 대치 4대장 단과, ebs까지 듣고도 현 수능 국어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결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인호 선생님의 수업은 달랐습니다.

**'장기간 배인호 선생님의 강의와 콘텐츠를 추월할 강의와 콘텐츠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

**'수능국어 독점 수준'**

**'제로 투 원 - 압도적 수능 국어 기술 격차'**

**'4차 산업혁명의 본질, 현 수능 국어 본질'**

**'흔란스러운 입시, 수험생들의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극단적 선택, 금전적 고통을 상당부분 말씀하게 정확시킬 강의와 자료, 교재'**

**'과거 언어영역 접근법으로 생긴 문제점을 현 수능국어영역 접근법으로 완벽하게 해소'**

**'간명한 정보처리 규격. 시간단축. 신속. 정확'**

- 수만휘, 오르비 무영탑

### 압도적 성적향상

**20수능 다시 분석해보는데, 이견 뭐 거의 선생님 틀 그 자체네요. 미쳤습니다 진짜...**

- 21학년도 수강생 추오
- 20수능 6등급 올해 3,4모의/전체 모의 고정 1등급

**20학년도 시즌1 12주 수업결과 (11월⇒3월)**

전국 6개 명인학원 중 2개지점 전원 1등급

대치명인 : 평균 2등급 ⇨ 전원 1등급

대전명인 : 평균 3등급 ⇨ 전원 1등급

**21학년도 시즌1 16주 수업결과 (11월⇒4월)**

온라인 라이브 A그룹 전원 1등급 (11월 기준 1~6등급이었던 전원 현재 고정 1등급 달성)

- 21학년도 수강생 최오

### 수능국어 독점 수준

**'수능 언어영역 접근법'이 아닌 '수능 국어영역' 접근법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보입니다. 2019 수능 42번 가능세계 복수 정답 시비, 만점자 148명, 선생님이 1타셨으면 절대 있을 일이 아닌데... 지금이라도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어 다행입니다.**

**'단어 하나 와리 가리. 수능이 숨은 단어찾기 시험이 아닌데 그러구 있었네요' 1:1 대응, 일 치문제, 하... 답답합니다. 그런 유형은 더 이상 없어요. 있더라도 선생님 방법으로 푸는게 몇배는 시간/피로도 다 단축됩니다.**

- 21학년도 수강생 문오

시즌 3대 1타강사는 첫 수업에 독서는 완전히 잡지 못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수업은 첫 3시간만에 현 수능 독서를 완벽히 처리할 수 있겠다는 명확한 확신을 평가원 오피셜을 근거로 줍니다.

- 21학년도 수강생 최오

# kicekor.com

## 배인호

### 新 수능국어

연구실 대표 번호 010-8388-5403

**'듣지 않은 학생이 손해'**  
'고3 평균 백분위 99.5. 수강생 김재오'

**'홍보할 필요도 없이 이미 실력, 강의력, 자료 1타'**  
'고3 평균 백분위 99 수강생 정해오'

**'인생이 바뀐 수업'**  
'6평까지 평균 4등급에서 수능 3등급, 수강생 정다오'

**'불안해서 듣던 대치 200명 마감 단과 2개. 선생님 수업 3주 만에 시원하고 깔끔하게 버렸습니다.'**

'삼수까지 평균 4등급. 6평 이후 수강 시작. 수능 1등급, 국민대 미대 합격 수강생 오오'

### 수강문의 / 개강반 안내

#### 수강/수업 문의 02-522-0207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9시-12시 |   |   |   |   |   |   |                    |
| 1시-5시  |   |   |   |   |   |   | 온라인 라이브 + 강남오르비 단과 |
| 6시-10시 |   |   |   |   |   |   | 소수정예 수업            |

\*소수정예 수업은 그룹과외/팀 수업으로 진행. 6평/12평 마감. 모든 학생의 풀이과정/사고과정을 점검 후 교정 진행

\*단과수업은 순차적으로 50명 마감, 80명 마감, 200명 마감반으로 확대 (수업시간 3시간 30분+a 2주 수강료 25)

\*온라인 라이브반 - 온라인으로 단과 수업 수강 가능

## 압도적 강의, 압도적 자료, 압도적 평가원 분석, 압도적 성장률 배인호 신수능국어 파이널 '수험생의 시간과 노력, 부모님의 고생과 투자. 그 무게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깁니다.'

### 배인호 선생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국어과 정교사 2급 자격)

대치명인학원

강남(서초)오르비학원.

이노에듀 학원/온라인

수만휘/오르비 칼럼 멘토

### 압도적 성장률/재등록률

2020 6평 후 대치/강남 수강생 1000% 향상

2020 6평 이후 개강반 100% 마감 (6월, 7월, 8월, 9월 개강반 연속 마감)

2020 수강학생의 동생 수강률 98%

2021 재수강률 평균 99%

2021 개강대비 6평 전 수강생 성장률 500%

### 이벤트 안내

압도적 강의, 압도적 자료, 압도적 평가원 분석, 압도적 성장률

## 배인호 신수능국어 파이널 I 1장 공식 '시험장에 들고 가는 마지막 1장'

본 파이널 자료 사진을 찍어 010-8388-5403으로 학생인증 신청해주세요!

학생인증이 완료된 학생에게는 시즌1의 가장 핵심 내용이 압축된 1~4주차 수업영상과 자료를 발송해드립니다 (4주 수강료 25만원 무료\*)

**학생인증 완료 후 10일 이내 등록시 혜택**

- \*지인 할인 10% + 누적 (내 추천으로 친구 등록시 나+ 친구 각각 10% 할인. 누적. 예. 5명 추천시 50% 수강료 할인. 5명 은 각각 10% 할인)
- \*8주 일시 등록- 보충/녹화 영상 100% 할인
- \*4주 일시 등록- 보충/녹화 영상 75% 할인

### 6평까지의 커리큘럼

**22주의 수업 18권의 정규 교재 5권의 보충 개념 교재 3권의 적용 연습 교재**

시즌1 파트1 예습 / 수업 / 복습

시즌1 파트2 예습 / 수업 / 복습

독서원론 파트 1 / 2 / 3

문학원론 파트 1 / 2 / 3

화작원론 파트 1

문법원론

운문문학론 연습 / 산문문학론 연습 / 문학론 연습

6평 대비 파이널 1 / 2

수나보 문학 / 독서 / 화법작문 / 문법 / 마인드맵

05~13 7차 언어영역 / 14~16 수능국어영역 시작 / 17~20 수능국어영역 확립

### 6평-9평 이후 수업 방향

- 최근 수능 기술 흐름 + ebs + 6평 반영
- 현 수능 국어 변화 + 22예비 평가 분석 결과 공유
- LEET, DEET, MEET, PSAT 중 수능 국어 관점에 부합한 지문/유형/문항만 선별
- 4대 사설 모의고사 중 최우수 회차만 선별
- 실전 모의 연습은 물론, 입시 고인물의 가장 객관적인 수험 방법론 까지.

평가원 임용되신 연구 교수님 수업 바탕

평가원에 임용되시기 직전 수업

평가원 연구 마치고 사대/교대 임용되신 교수님 수업

평가원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 수업

평가원 오피셜 자료 + 평가원 연구 논문 + 평가원 관계되신 교수님들의 주요 논문

기술에 연계 적용

학생들 피드백

매주 1권의 교재를 씁니다.

매주 수천건의 학생 성찰일지를 분석합니다.

가장 평가원스럽게, 가장 학생에 가깝게, 가장 올해 수능에 가깝게.

### 6평-9평 이후의 커리큘럼

**20주의 수업 17권의 정규 수업 교재 3권의 적용 연습 교재 20주간의 실전 모의 연습**

시즌2 파트1 예습 / 수업 / 복습

시즌2 파트2 예습 / 수업 / 복습

독서원론 파트 5 / 6 / 7

문학원론 파트 5 / 6 / 7

화작원론 파트 2

9평 대비 파이널 1 / 2

수능 대비 파이널 1 / 2

ebs - 수능 - 기술 연결고리 잡기 적용 교재 (평가원-ebs연계-교육청 완벽 해소)

LEET, MEET, DEET, PSAT, 사설 모의 중 평가원 경향성 지문 연결 흐름 잡기 (사설 모의는 이감/상상/바탕/한수 4대 모의 중 가장 올해 수능 느낌과 유사한 회차를 선별하여 학생들에게 정보 안내를 진행합니다.)

### 수업의 흐름, 학생의 학습 관리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zerobase 3회독 시간/노력

=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20회독 시간/노력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습 - 수업 직전 직후 - 수업 - 복습 - 성찰 - 체화

\*모든 학생 개별 밀착 관리 도구

\*복습 영상 (유료/할인) 제공

\*복습 자료 / 보충 자료 (유료/할인) 제공

\*21시즌 이탈률 1% 미만 (이탈자 역시, 입시 이탈, 전형 변경등의 사유)